

# 익산, 도시공원 시민 쉼터 조성 속도

# 군산,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구축

### 마동공원 고봉산둘레길·풍경정원 등 5개 테마로 행정절차 거쳐 2022년 준공 예정

익산시가 도시공원의 시민 쉼터로의 조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사업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시정 반영을 통해 주민 친화형 공원조성에 주력한다. 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마동공원을 시민친화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28일 열었다.

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는 마동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동공원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조성'을 주제를 가지고 5개의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복합에는 진입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폭포가 들어설 산수원광장, 고봉야우를 기억하며 마을의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둘레길인 고봉산둘레길이 계획됐다.

두 번째 숲속 이색공간으로 다양한 숙근초를 활용해 기존 수림과 다른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숙근초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생태교육장소

인 도담숲정원 등이 조성된다.

또 다양한 모양의 조형석을 감상하는 석물원과 문화체험공간인 수림재, 청소년 여가활동과 체험을 위한 풍경정원 등이 계획됐다.

아울러 어르신과 아이들의 공동 공간인 열림정원,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테니스장 16면이 포함된 쉼터정원 등이 조성된다.

마동공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경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 공원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마동공원에 대한 테마·주요 도입시설, 향후 추진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마동공원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수도산공원(동산동행정복지센터), 30일 모인공원(신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각각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 시민 공모 브랜드 슬로건 물빛희망도시 최종 선정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 '물빛희망도시 군산'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민대상 공모작 201건을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시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물빛희망도시 군산으로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물빛희망도시 군산은 바다, 강, 호수, 섬과 같이 물과 연관된 장소와 풍경이 사람의 눈길과 발길을 이끌고 기회의 땅 새만금이 희망찬 미래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없는 선정하지 않으며 물빛희망도시 군산의 단점으로 지적된 정적인 부분은 슬로건 일부변형과 다이나믹한 퍼디자인 제작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브랜드슬로건 개발 후 교체로 인한 과도한 예산소요, 혼란방지 차원에서 홍보효과, 교체비용, 표시물 특성에 따라 신규 사용·제작부터 새로운 슬로건 작성을 단계적으로 사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 모 대학교수는 "군산을 물과 관련한 도시로 연계시킨다는 발상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한 눈에 의미가 들어오지 않지만 요즘 슬로건은 글자를 거꾸로 쓰거나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만큼 꼭 사전적 의미로 보려고 하지 말고 비유적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빛다리, 물빛거리, 물빛길 등 현재 쓰이고 있는 지역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의 슬로건으로 정립해 나갈 때 관련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27일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아사카시 엘킨진 시장, UZ-GM 주파르베크 이사 등 일행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군산시,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와 상호 협력 모색

### 김임준 시장과 간담회 가져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과 자매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산시가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아사카시 엘킨진 시장, UZ-GM 주파르베크 이사 등 일행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을 토착화 시켜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대우자동차(지엠 포

함)가 거의 90% 이상 운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번 아사카시장 일행의 방문은 지난해 12월초에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6명의 기업체 대표가 안디잔주와 아사카시를 방문해 사업투자 MOU 체결 등에 따른 답례 방문의 형태로 직접 산업현장을 보고자 방문했다.

이에 군산시의 아사카시는 향후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 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산의 자동차 부품업

체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부품과 더불어 다방면의 수출 활로의 길이 열리며, 또한 우리시 기업체들의 우즈벡 진출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개방의 물결을 타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투자와 기술인력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에 아사카시장은 군산시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적극 유도하였고 군산시장도 시간이 허락될 때 방문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국비 19억6000만원 등 총 38억4000만원 투입

군산시가 지역민들의 먹거리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APC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9억6000만원 등 총 38억4000만원으로 (재)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산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예측 가능한 지역생산-지역소비 시스템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나 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을 넘어 나아가 새만금 지구 신생기업까지 군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푸드플랜이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다.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각 도시별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개최된 엑스포에서 체결된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을 통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과 2017년 전주시와 서울시가 각각 자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가단위 푸드플랜을 마련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동물보호단체 유익한 사람들(대표 유소운)이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한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및 바자회가 지난 27일 모현동 배산 체육공원에서 500여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은 유실·유기동물과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입양 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교육과 동물소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 유기견 치료를 위

한 후원 바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입양을 위해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던 유기견 약 60마리 중 21마리가 입양됐으며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개인 봉사자들이 후원한 물품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 약 400여만 원 전액은 보호 중인 유기견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이 캠페인을 실시해 유기동물 입양·홍보, 펫티켓 교육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 사회복지시설·기관장, 복지정책 논의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성배)가 28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지역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미륵사지 관람을 진행하며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기관장들과 지역의 문화와 복지현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정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

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의 복지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지역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복지현장에서 열정과 배려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시설 및 기관장님들이 우리지역 문화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